

유의어 교학과 장소유의어의 형태구조 분석*

김 정 필**

<目次>

- | | |
|--------------------------|----------------------|
| I. 서 언 | III. 형태소의 의미범주와 도상화 |
| II. 유의어의 변별과 사전적 해석의 재검토 | IV. 이음절 유의어의 형태구조 분석 |
| | V. 결 어 |

I. 서 언

본 논문은 중국어 교학과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유의어 오류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어 교학 및 학습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유의어들을 만나게 되지만,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참고하게 되는 회화교재나 혹은 간략한 사전적 설명만으로 유의어의 의미범주나 어법적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유의어의 변별은 실제로 모국어 화자도 유의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의어 상호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안점은 어휘가 표시하는 의미범주의 경계범위를 윤곽으로 그려봄으로써 유의어 상호간의 차이점을 시각화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논문은 2013년도 영남중국어문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본래 유의어¹⁾는 동일한 의미범주를 나타내는 ‘동의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의어 상호간의 어휘의미 및 용법차이가 아닌 화용, 수사, 품격 등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점을 구별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재나 유의어사전 등에서 변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일관성 없이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면, 오히려 이론적 토대가 없는 초학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의미범주상의 유의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개의 유의어를 이항대립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두 어휘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즉 유의어 상호간의 차이점을 형태소의 의미범주를 통해 접근해 봄으로써, 유의어 자체의 형태구조를 통해 그 차이점을 묘사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인지언어학에서는 추상적 의미에 대한 ‘도상화’를 통해 범주의 ‘윤곽’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방법은 어휘가 표현하는 추상적 의미범주를 우리가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도상화의 활용은 ‘반의어’와 같이 명확한 대립개념 이외에도 유의어와 같은 유사성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한 대립적 윤곽을 도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사실 유의어의 형성은 고대중국어에서 형성된 단음절의 의미범주 이외에, 대개 음절의 확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현대중국어에서 두드러진 특징인 이음절화는 유의어 형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음절 유의어는 특정의 동일형태소에 또 다른 의미변별의 형태소를 부가하여 어휘의미의 범위의 윤곽을 드러내거나, 혹은 새로운 어휘를 파생해내기도 한다. 따라서 유의어의 분석은 상호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형태소와 서로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소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1) 본래 유의어는 동의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화된 단어의 총체적 의미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됨으로써 완전히 동일한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어와 유의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刘叔新 主编『现代同义词词典』(1993) 1쪽 참조.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본문에서 채택한 ‘형태소 분석법²⁾’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대응하는 형태소를 서로 대비시켜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의미범주의 윤곽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석의 초점을 이음절 유의어에 두고, 먼저 이음절 유의어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의 의미범주에 대한 도상화를 통해 그 범위의 윤곽을 도식화해 본다. 이렇게 도식화된 윤곽을 토대로 하여 이음절의 어휘구조를 ‘A+B’형식으로 구분하며, 어순관계를 ‘바탕+초점’의 대비 관계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형태소의 의미관계를 분석한다. 그 구체적 분석으로는 먼저 공통된 ‘A-’항으로 구성된 유의어를 선택하여 ‘B’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다시 ‘-B’의 공통항을 가진 유의어의 공통된 의미초점을 기반으로, 의미형성의 근거가 되었던 ‘A’항의 바탕이 나타내는 의미범위의 윤곽을 그려본다.

II. 유의어의 변별과 사전적 해석의 재검토

우선 지금까지의 연구나 유의어사전 등을 통해 드러나는 유의관계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다. 대개 학습자들이 참고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의어사전³⁾에서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의미, 어법, 화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유의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초학자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는 힘

2) 본문에서 활용하는 형태소 분석이 모든 이음절 유의어를 비교할 수 있다고는 전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휘의 생성이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삼음절 이상의 어휘를 어떻게 ‘바탕과 초점’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다양한 방법적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유의어사전은 서너 종류가 있으나, 그 중 장소유의어를 채택하고 있는 두 개의 유의어 사전(송산출판사의 《중국어유의어사전(2005)》-이하 ‘중유’, 시사에듀케이션의 《북경대유의어비교사전(2006)》)과 天津人民出版社의 《现代汉语同义词词典》(1993 -이하 ‘同典’)에서 그 분류 항목을 발췌하였다.

들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들 유의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소유의어를 분류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 단음절 유의어의 의미범주와 이음절 유의어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검토한 사전은 송산출판사의 《중국어유의어사전(2005)》 -이하 ‘중유’), 시사에듀케이션의 《북경대유의어비교사전(2006)》 -이하 ‘북유’)과 天津人民出版社의 《现代汉语同义词词典》(1993 -이하 ‘同典’)의 세 종류로, 그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유》에서는 ‘地、地方、地点、地区’를 모두 유의어 선상에 놓고, 다시 ‘地和地方’, ‘地方과 地点’, 그리고 ‘地方과 地区’를 이항대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⁴⁾ 우선 이항의 분류과정에서 ‘地方’이 ‘地、地点、地区’와 모두 대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地方’의 사용범위가 제일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된다. ‘地方’의 응용범위가 다른 어휘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것은 《同典》에서도 볼 수 있는데,⁵⁾ 아마도 형태소 ‘方’이 특정 지점이나 지역이 아닌 방향성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地、地方、地点、地区’는 모두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地’와 ‘地方’은 색채와 용법, 그리고 음절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地点’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곳으로서, 특별이 작거나 매우 넓은 장소를 지칭할 수 없는데 비해, ‘地方’ 특정 구역 이외의 공간 범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대비되고 있다. 다시 ‘地区’는 ‘범위가 비교적 크고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구역’이어야 하며, ‘地方’과 대비되는 점은 ‘일정한 경계가 있는 장소라야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유》에서는 “‘地’는 ‘地点、地域’의 의미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⁶⁾하면서, ‘地’의 경계를 ‘地方’과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설명으로 경계범위를 흐려놓고 있다. 사실 ‘地’의 경계는 ‘天’과 대비

4) 《중유》(2005), 148쪽.

5) 《现代汉语同义词词典》(1993), 133쪽.

6) 《중유》(2005), 150쪽.

되는 공간으로 그 범위는 ‘地方’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유》에서는 ‘地点、地区、地位、位置’를 하나의 유의관계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리고 ‘地址’와 ‘住址’를 따로 유의관계의 선상에서 분류하고 있다.⁷⁾ 이 사전의 특징은 모두 각각의 어휘에 대한 어법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서로 호용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地点、地区、地位、位置’의 구체적인 용법을 비교해 보면, ‘地点’은 ‘소재한 곳을 나타내며 범위가 매우 작다’라고 설명하며, ‘地区’는 범위가 조금 크며, ‘位置’는 가장 작고 확정적인 범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地位’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곳이며, 또 하나는 사람이나 사물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처한 위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⁸⁾

세 번째, 《同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이항대립을 통한 비교보다는 하나하나의 어휘의 쓰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① 地步、田地、境地
- ② 地方、所在、处所、地、方、处、境地
- ③ 地区、地域
- ④ 地位、位置

위의 7개의 유의어를 동시에 나열한 것은 《同典》으로, 다시 세부적 설명에서는 ‘地方、地、方、处’가 하나로 엮여 있으며 ‘所在’와 ‘处所’, 그리고 ‘境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먼저 ‘地方’을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地、方、处’ 모두 ‘地方’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地’는 ‘地方’과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地’가 ‘地方’에 비해

7) 《북유》(2006), 122쪽.

8) 위의 책, 122쪽.

사용범위가 좁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다시 ‘方’은 ‘地方’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에 있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거나, 문언문과 서면어에 제한적으로 쓰이며, ‘地’보다는 협소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处’는 의미와 사용범위가 ‘地方’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언어휘이자 단음절어와 결합하는 것이 차이이다.

둘째, ‘所在’와 ‘处所’는 ‘사람이나 사물이 활동하거나 존재하는 공간범위’라는 점과 구체적이면서 크게 작지도 그다지 크지도 않은 구역 혹은 일부분의 공간을 가리킨다는 점, 그리고 서면어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所在’는 ‘그 사이에 존재하려 한다(要存在其间)’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处所’는 ‘그 사이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다.’의 의미로 그 사용범위가 가장 협소하며,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공간범위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 ‘境地’는 경계나 환경의 의미를 지니며, 문예작품에 많이 사용되어 문예풍격과 문언색채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地步’나 ‘田地’와 맺게 되는 유의관계와는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地区’와 ‘地域’는 의미범주의 유의성이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유의관계에서 이항대립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同典》에서는 ‘地区’와 ‘地域’의 공통점을 비교적 큰 범위 혹은 면적을 지닌 곳(地方)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地区’는 ‘서로 이웃한 다른 지방과 구분되어지는’와 ‘地域’ 위의 두 유의어는 필자가 추구하는 이항대립의 방법론에서 ‘A-’의 형태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상의 세 유의어 사전의 대략적인 분류와 설명을 살펴보면, 먼저 한 개의 어휘에 대한 어법, 의미, 화용 등의 설명을 한 것에서부터 두 개, 세 개, 심지어 네 개 이상의 어휘가 동시에 유의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이항대립’의 통한 두 개의 유의어를 비교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하지만,

9) 《同典》(1993), 133쪽.

10) 위의 책, 134쪽.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나 방법을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어렵다. 특히 초학자들이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며, 우리가 교학과과정에서 그것을 응용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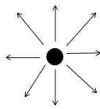
Ⅲ. 형태소의 의미범주와 도상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에서 상용되고 있는 장소유의어 중에서 이음절 유의어에는 ‘地点, 地方, 地位, 地区, 地域, 地址, 位置, 住址’ 등이 대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유의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 공간의 대소(大小)와 특정 위치, 그리고 상하 혹은 수평의 도식화를 결정하는 일정한 경계선을 통해 각 유의어의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우선 형태구조를 「A+B」로 구분해 본다면, ‘A’를 구성하는 형태소 ‘地’는 대개 전체 장소의 기준이나 바탕, 즉 경계설정의 배경을 제공하며 특정한 범위나 모양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후반부를 구성한 형태소 ‘B’는 ‘A’의 바탕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윤곽을 통한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개 모국어 화자나 청자들은 대개 그들의 언어 경험을 통해 그 윤곽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지만, 외국인이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구획을 획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음절 유의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 의미범주를 살펴봄으로써, 이음절 유의어를 구성하게 된 이후의 윤곽설정에 나타나게 될 바탕과 초점으로서의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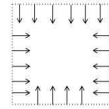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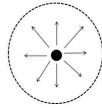
우선 장소유의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중에서 경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초점(B)를 구성하는 ‘地、点、方、区、域、址 등’의 의미범위를 도상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点’과 ‘方’

먼저 ‘点’과 ‘方’가 장소의 표현에서 유의어가 된다는 것은 특정 장소가 가지는 크기나 범위의 한계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휘의 구성요소인 형태소로서 ‘点’과 ‘方’은 작고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그 차이의 구분이 모호한 장소를 서로 다른 문자를 통해 장소를 나타내는가는 분명히 그들이 인지하는 장소에 대한 영역¹¹⁾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 点的 도상 -



- 方的 도상 -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点’의 초점은 중앙에 있으며, 사람들이 인지하는 ‘点’의 시선은 중앙에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方’의 초점은 사방에 있으며, 인지적 시선의 방향은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된다. 다만 인지의 초점이 되는 기준이 나타내는 사방은 명확한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도상화의 각도에서 그 차이를 설명해 보면, 이들이 표시하는 장소범주는 면적에 해당하는데, 면적을 구성하는 도형의 비교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点’은 ‘원형(圓形)’의 측면에서, ‘方’은 ‘네모(方形)’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체적의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点’은 속이 가득 찬 ●이나 중앙이 초점인 ◎의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方’은 가장자리가 초점인 □나 ◇ 등 사방을 나타내는 방위각도에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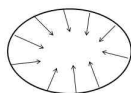
11) 인지언어학에서는 ‘영역(domain)’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틀이 되는 ‘형상, 크기, 색깔, 용도 등’을 종합한 관점에서 관찰한다.(《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142쪽 참조.)

해 볼 수 있다.(도형) 그러나 ‘方’의 범위를 설정하는 네모의 경계선은 여전히 점선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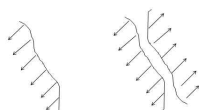
2. ‘区’와 ‘域’

‘区’와 ‘域’는 대부분의 유의어 사전에서 이항대립으로 구분되는 유의어로 모두 일정한 윤곽을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면 장소어휘의 구성에서 이 두 형태소의 역할을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영역의 각도에서 접근해 보자. 먼저 형상의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이들은 ‘点’이나 ‘方’과 같이 일정한 형태의 도형이 아닌 불규칙 도형을 형성한다.

먼저 이러한 도형의 형성과정에서 ‘区’가 대개 행정적 인위적 구역¹²⁾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域’은 대개 지형이나 자연적인 지리적 현상으로 구성된 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区의 도상 -



- 域의 도상 -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영상을 통해 본 ‘区’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일치하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도형을 구성하는 선에 초점을 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域’은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마주보는 ‘선’에 초점을 두고 중심의 ‘점 혹은 면’으로 방향이 설정되며, 선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12) 《同典》(1993)에서는 ‘地区’를 ‘인접한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地域’는 ‘일정한 자연분계선의 안쪽’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4쪽 참조.

3. ‘地’와 ‘址’

‘地’는 기본적으로 ‘땅, 터 등 기초가 되는 지점’으로 사람과 사물의 관계 및 자연적인 형상 그대로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무형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의 초점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바탕을 기준으로 하는 일정한 지점으로, 객관적인 특정 범위가 아닌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한다. 하지만, ‘址’는 땅의 일부분으로서 인위적으로 수치를 지정한, 즉 행정적으로 구성된 일정한 범주의 땅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발화의 각도에서 보면, 화자가 말하기 이전에도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땅 혹은 건물로서, 번지라는 숫자를 통해 묘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地의 도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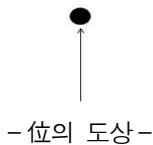
- 址의 도상 -

‘地’의 도상은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형태구조에서 ‘바탕(A-)’을 표시하는 도상은 하늘(天)과 대비되는 지상(地上) 공간으로서 모든 사물의 배경이 된다. 둘째, 초점(B)에 왔을 때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地点’과 일치하며, 다만 여전히 외부의 경계선이 모호한 공간으로 파악된다. 단순히 형태소 ‘址’가 의미하는 공간은 일정한 ‘땅, 터’를 나타내는 지상(地上)의 공간이나, 일정한 번지수를 가진 제한적이고 행정적인 인위적 공간으로써 초점만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地’와 다르다.

4. ‘位’와 ‘置’

‘位’와 ‘置’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모두 대상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어떤 방법으로 위치하고 있느냐에 차이를 둔다. 먼저 사전적 해석을

보면, ‘位’는 ‘所在或所站的地方’으로 정의되며, ‘位置’에 대한 해석과 기본적으로 같다¹³⁾. 따라서 ‘位’는 ‘位置’와 ‘地位’의 의미를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고대에는 제왕의 지위에 쓰였으며, 대개 사람의 직위나 지위 등 추상적인 범주에 많이 쓰인다. 특히 숫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各位、百位、十位数’ 등은 완전히 추상화된 인위적인 위치로서 상하도식으로 도상화할 수 있다. 반대로, ‘置’은 특정 위치에 놓여있는 물체, 즉 물체가 놓인 지점에 초점이 있으며, 오히려 구체화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적인 각도, 즉 관계의 각도에서 접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位’와 ‘置’의 공통점은 넓은 면적의 공간이 아닌 일정한 제약을 가진 특정 지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位’는 상하도식의 초점이 ‘上’에 있기 때문에 보다 추상적인 위치나 임의적인 공간설정이 가능하나, ‘置’는 도식의 초점이 ‘下’로서 ‘地上’의 특정 공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각 형태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地’는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초점으로서 대개 특정 지점을 나타내나 대부분 바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록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地’(무형-면 혹은 점), 点(원형-중심), 方(네모-선), 区(도형-면), 域(호-선), 址(숫자-점)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 대립의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IV. 이음절 유의어의 형태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어 ‘장소유의어’ 중에서 ‘地’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13) 《现代汉语词典》(1995), 1201쪽 참조.

장소유의어를 중심으로 초점의 차이를 통해 유의어의 차이점을 변별해 보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장소공간은 미세한 ‘점(点)’의 공간에서부터 ‘하늘(天)’과 대비되는 ‘땅(地)’을 토대로 하는 거대한 ‘장소 공간(空间)’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땅(地)를 기준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는 ‘地-’를 형태소로 ‘地点、地址、地区、地域、地方 등’의 공간표현 어휘가 대표적이며, 이들 유의어가 가지는 형태구조 ‘A(바탕)+B(초점)’의 관계를 상호 이항대립의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통 ‘바탕’의 ‘A-’ 구조

1) ‘地点’과 ‘地方’

먼저, ‘地点’과 ‘地方’이 유의어 관계에 속하는 것은 ‘点’과 ‘方’이 어떤 환경에서 유사한 경계점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에 있다. 우선 ‘点’은 아주 좁은 공간인 점에서부터 어떤 제한된 특정 지역을 하나의 개체로서 묘사되는 반면, ‘方’이 하나의 점으로 묘사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개별적 관계에서 결정된다. 순수하게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를 비교해 본다면, ‘点’이 원의 형태를 가지는 반면, ‘方’은 대체로 네모의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다. ‘点’은 원의 가운데에 초점을 두고 방향성이 없는 반면, ‘方’은 네 각을 지니면서 방향성을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추상적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서 가장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①这么大的地方(地点×), 举办百人的舞会没问题。
- ②江南许多地方(地点×)都遭了水灾。
- ③我们就在这个地方(地点×)坐一坐, 歇一会儿, 好吗?
- ④把我们学校地点(地方×)写在这儿。
- ⑤大华宾馆的地点(地方×)在哪儿?
- ⑥人们纷纷奔向出事地点(地方×)。

‘地点’은 ‘地方’에 비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곳으로 특별히 작거나 매우 넓은 장소를 지칭할 수 없다. 《중유》에 의하면 ‘地方’이 가리키는 구역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또 특정 지역일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地方’이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활동하고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곳으로서 특별히 작거나 혹은 넓은 장소를 지칭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점으로 표시된 특정 위치는 ‘地点’이며, 地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개의 지역이 모아놓은 더 큰 단위의 경우에는 ‘地点’보다 ‘地方’이 더 합당하게 쓰인다. 이것은 점(点)과 선(线)을 통한 대비를 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 범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地点’과 ‘地区’

단순히 두 유의어의 서로 다른 형태소 차이는 ‘点’과 ‘区’은 ‘점’과 ‘구역’으로, 그 크기의 차이가 쉽게 드러난다. 《북유》에서도 ‘地点’은 ‘소재한 곳을 나타내며 범위가 매우 작으며, ‘地区’는 범위가 조금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 ⑦ 他们上课的地点(×地区)是学生的家里。
- ⑧ 北京地区(×地点)明天将有小雨。

하지만, ‘地点’과 ‘地区’ 또한 다른 지역과의 대비를 통해 볼 때는 여전히 표현상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点’은 면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점에서 여러 개의 지역 중의 특정 지역을 여전히 한 개의 ‘点’으로 묘사하게 된다. 여기에서 ‘点’은 그것이 하나이든, 혹은 여러 개 중의 하나이든 대비의 관점에서는 ‘작다’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고 판단된

14) 《중유》(2005), 149쪽.

15) 《북유》(2006), 122쪽.

다. 반대로, ‘区’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일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일수도 있고, 프로젝트나 사업 등이 시행되는 특화된 구역을 의미한다.

- ⑨ 把学校的地点(×地区)写在这儿。
- ⑩ 人人纷纷奔向出事地点(×地区)。
- ⑪ 这个地区(×地点)的绿化工作做得很好。

예문에서 보듯이, ‘地点’과 ‘地区’의 대소(大小)구별은 자연스러우며, 크게 혼동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앞 절의 도상을 비교해 볼 때, 자연스럽게 일정한 경계를 포함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地区’가 가장 자리의 경계선을 초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地点’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3) ‘地方’과 ‘地区’

‘地方’과 ‘地区’는 모두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 범주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가 다르다. 먼저 ‘地区’가 가리키는 구역은 반드시 범위가 비교적 크고 면적이 넓은 구역이어야 하며, 일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¹⁶⁾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한 경계라는 것이 어떠한 경계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地方’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地区’는 쌍음절 지명 뒤에 올 수 있으나, ‘地方’에는 그런 용법이 없다.

- ⑫ 东北地区(地方×)下了四十年来罕见的大雪。
- ⑬ 沿海地区(地方×)近些年来经济发展得很快。
- ⑭ 这个地方(地区)扫得不干净, 再扫一扫。
- ⑮ 很多人都说大连是个很美的地方(地区×), 有时间一定去看看。

수식성분에 따라 장소를 나타내는 범주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름다운

16) 《중유》(2005), 150쪽.

곳'은 땅이 아니라 땅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

4) '地区'와 '地域'

'地区'와 '地域'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큰 범위나 면적에 사용된다. 《同典》에서는 '地区'에 대해 '서로 이웃하는 지역과의 구분으로부터 나왔다'¹⁷⁾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인위적으로 분류했음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행정구역일수도 있고 개략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⑩ 流行病在这个地区蔓延开来。

⑪ 当时东北地区还不安定，可是他已经打算……。

'地域' 또한 일정한 범위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나, 그 경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명확한 경계선이 아닌 '일정한 자연분계선의 안쪽'¹⁸⁾을 표시하여 인위적 경계선인 '地区'와 대비된다.¹⁹⁾ 말 그대로 강이나 골짜기 등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선이나, 방위 등을 경계로 임의적으로 선택한 지역을 의미한다.

⑫ 注意紧紧抓住特定地域，特定景物的描写来为人物提供活动背景。

⑬ 经济发展水平地域差异大的畸形状况正在逐步改变。

이처럼 '地区'와 '地域'는 비록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지나, 구체와 추상의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은

17) 《同典》(1993), 134쪽.

18) 《同典》(1993), 134쪽.

19) 우리말 사전에서도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일반적으로는 보다 크게 정해진 구역. 국토, 지방, 지역, 도시, 지구라는 순위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일정한 지표면 상에 자연 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이 유사한 지표공간을 말한다.'

실제적인 지표(地表)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내거나 혹은 추상적 비교대상으로서의 구역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동일 초점의 ‘-B’구조

1) 地址와 住址

모두 한국어로 ‘주소(住所)’²⁰로 번역되는 ‘地址’와 ‘住址’는 동일 초점의 ‘-B’구조를 형성한다. 이들의 차이는 바로 바탕인 ‘A’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앞에서 사건의 해석을 통해, ‘地址’는 사람이나 단체가 거주하거나 서신을 왕래하는 곳을 의미하고, ‘住址’는 거주하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이러한 설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 또한 형태소의 특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地址’와 ‘住址’는 ‘-B’의 형태구조로 공통점은 ‘址’는 건축물의 토대인 ‘터, 땅’을 가리키는데, 대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번’ 혹은 ‘번지’ 등으로 지정된 위치로 파악할 수 있다. 바탕이 동일한 ‘A-’구조와는 반대로 차이점이 전반부의 바탕이 다른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바탕의 차이에 근거한 일정한 지역, 즉 ‘地’가 단순히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住’는 사람들의 거주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⑳ 他家的住址(地址○)是华光大道15号。
- ㉑ 我在地图上找不到这个公司的地址(住址×)。
- ㉒ 告诉我你的地址。
- ㉓ 给你我家的住址。

위의 예를 참조해 보면, 단순히 주관적인 의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번지인 숫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여 특정 위치(예문에서는 지도)에

20) ‘住所’ 또한 ‘住址’와 ‘A-’의 형태구조의 유의관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서의 번지나 지점을 가리킬 때는 ‘地址’가 적합하며, 사람과의 관계에 치중하게 되면 ‘住址’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田地’와 ‘境地’

‘田地’와 ‘境地’도 ‘-B’의 형태구조로 바탕의 차이가 서로 대립되며, ‘地’가 초점으로 작용하는 어휘이다. 《同典》(1993)에 의하면, ‘田地’는 ‘地步’와 더불어 부정적인 경우에 쓰이며, ‘境地’는 긍정부정 모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¹⁾ 본래 ‘田地’는 농지(农地)를 의미하며, 추상적인 경지를 의미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즉 한국어의 ‘지경’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田’과 ‘境’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田’과 ‘境’은 기본적으로 모두 ‘경계’를 나타내는데,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한 경계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 ⑳ 水库正在干涸, 农民开始离开田地去寻找水源。
- ㉑ 谁也没想到他老了会是这般田地。
- ㉒ 他不听大家的劝告, 以致落到今天这步田地。
- ㉓ 我不愿意处于他的境地。
- ㉔ ……大森林中, 斜月一楼, 那样的诗意的境地。

사실 예문을 보더라도 과연 두 유의어가 모두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 차이를 분별하기가 어렵다. ‘心如明镜的境地(달관의 경지)’나 ‘达到忘我的境地(몰아의 경지)’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쓰인다. 먼저 글자를 통해 살펴보면, ‘田’은 밭을 구분하듯이 일정한 구역을 가진 사방이 모두 경계를 가진 ‘방형(□ 혹은 ‘田’형)’의 구역으로 파악되어, 대개 수평도식으로 ‘면’에 초점이 주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지 않는 ‘선형(—)’의 경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초점이 선에 있기 때문에 구역 내부의 면적보

21) 《同典》(1993), 132쪽.

다는 ‘원근도식’이나 ‘상하도식’ 등으로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나 부정긍정 등의 주관적 요소보다는 다양한 도식을 통한 설명으로 시각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바탕과 초점이 상호 대비되는 유의어

1) ‘地步’와 ‘田地’、‘境地’

앞 절에서 ‘田地’와 ‘境地’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이들과 유의관계에 있는 ‘地步’는 바탕과 초점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형태구조의 대비초점을 ‘地步’에 둔 것은 위 세 어휘가 유의관계를 맺는 것은 ‘~한 경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 抗战到了这地步，大概也一种‘置之死地而后生’的办法罢。
- ㉩ 你们现在已经到了山穷水尽的地步。
- ㉪ 啊！事情严重到这步田地吗？
- ㉫ 别个这下倒搞好了，我们家可不晓得要闹到什么田地。
- ㉬ 春儿很后悔自己打了个盹儿，就陷入了这样难堪的境地。

‘地步’의 형태구조는 ‘地’가 전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탕으로서 ‘步’가 나타내는 ‘행위도식’의 출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田地’와 ‘境地’에 초점은 일정한 지점을 의미한다. ‘田’과 ‘境’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이들의 도상은 ‘面(田)’과 ‘线(境)’의 차이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대체로 ‘地步’와 ‘田地’는 대체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쓰이며, ‘境地’는 긍정부정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것은 面(田)을 바탕으로 하는 ‘地步’와 ‘田地’는 ‘수평도식’으로, 线(境)을 바탕으로 삼는 ‘境地’는 ‘상하도식’과 ‘수평도식’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地位’와 ‘位置’

형태소가 나타내는 의미범주를 통해 ‘地位’와 ‘位置’의 차이를 구분해 보

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기분으로 삼아 인위적으로 형성한 특정한 곳’을 나타내며, ‘상하도식’으로 윤곽이 형성된다. 이와 달리, ‘특정 대상이 위치한 곳 혹은 장치나 구조가 설치된 곳’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며 ‘수평도식’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㉔ 请告诉我们确切的位置/地点?(둘 다 가능)
- ㉕ 请告诉我你所在的位置(×地点)?
- ㉖ 他在家里的地位(位置/×地点)很高。
- ㉗ 北京地区(×地点)明天将有下雨。

이상의 예에서 볼 때, ‘地点’과 ‘地区’, 그리고 ‘地位’와 ‘位置’가 좀 더 유사한 의미범주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명한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공간의 대소, 확정과 비확정, 그리고 구체와 추상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예문㉕에서 예문㉗의 대비를 볼 때, 地点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어

우리는 앞에서 장소유의어의 의미영역(범주)과 사용범위(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출판된 유의어를 살펴보았다. 물론 두 권의 유의어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많은 부분에서 한국어 설명을 참고로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모국어 화자들의 경험에서 오는 의미범주와 어법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화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유의어 사이의 차이점과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인지언어학의 ‘도상화’를 응용한 수학적 방법을 윤곽을 설정해 보았다.

대개 중국어에서 의미의 축소와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유의어는 형태소

의 부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는 ‘地点, 地位, 地区, 位置, 地方’ 등 다양한 유의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범주는 각 유의어가 나타내는 공간의 대소(大小)와 특정 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의어 사전들이 제공하는 설명은 비록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히 그 대소(大小)의 차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나 청자들은 대개 그들의 언어 경험을 통해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지만, 외국인이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구획을 확정하기 힘들다.

첫 번째는 형태소 간의 의미범주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장소 유의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살펴보면, 크게 ‘地、点、方、区、域、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이들 형태소가 나타내는 의미는 점(원형, 면), 方(네모, 선), 区(도형, 선), 域(도형, 면), 地(무형, 범위), 址(숫자, 범위)로 상호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소의 수학기공식을 통해 도상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형태구조의 어순대비를 통한 의미범위를 비교한다. 즉 ‘A+B’로 구성된 이음절 어휘의 경우에는 ‘A’는 특정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탕’이 되며, ‘B’는 영역을 결정하는 초점으로 해석을 해 보았다. 예를 들면, ‘地方’은 ‘地’가 기준이며 ‘方’이 방위영역으로 네모의 형태로 설정되며, 원의 영역인 ‘点’과 구별될 수 있다. ‘地址’와 ‘住址’에서 동일한 초점영역 ‘址’는 일정한 지면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단순히 땅을 기준으로 장소인지 아니면 사람이 생활영역을 통해 파악했는지를 구분하게 된다.

유의어의 형성은 모국어 화자들이 느끼는 유사성에서 비롯되었으나,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한 시대와 장소, 발생원인이 다르게 생겨난 유의어들을 외국인들이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외국어 교학과정에서 유의어들의 의미범주나 용법, 그리고 언어습관 등의 언어 외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록 어휘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복합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B’구조의 특성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인 장소 혹은 방위명사에 ‘-边, -方, -头’가 붙어서 방향을 통해 일정한 장소를 표시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조방식의 장소유의어는 특정 장소를 표시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로, 앞에 오는 바탕형태소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장소일수도 단순한 공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으며, 더 좋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소개와 교학방법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김동환 저,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2005.
 임지룡 저,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卢福波 편저, 오문의 등 역, 《중국어유의어사전》, 송산출판사, 2005.
 马燕华·庄莹 저, 이재옥 번역, 《북경대유의어비교사전》, 시사에듀케이션, 2006.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编辑室,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1995.
 刘叔新 主编, 《现代同义词词典》,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3(제2판).
 Vyvyan Evans, 임지룡 등 역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2.
 Y. Tsuji 편, 임지룡 등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 한국문화사, 2004.

< 中文提要 >

为了适应教学的需求, 本文以二元对立的方式来考察了表示‘场所(地方)’范畴的汉语近义词。首先考察了现存同义词词典所说明的辨别方式, 而批评这种辨别方式的复杂性和模糊性。接着以语素分析来解释处所近义词的二元对立。先分析单音节语素来它们的意义范畴之差异而进行双音节近义词之间的二元对立。第三章对‘单音节语素范畴进行了图象化, 以此来考察对构成词

语的语素进行以‘背景-焦点’的两个角度来区分‘地、点、方、区、域、址’的意义范围。例如，点(圆-面)、方(方-线)、区(图形-线)、域(图形-面)、地(无形-范围)、址(数-范围)。第四章根据单音节语素的图象对比开考察了双音节词汇的语素分析，并通过例句来对比各种近义词二元对立。

Key Words : 场所(place)、相似性(similarity)、近义词(synonym)、语素(morpheme)、图象化(schematization)、剪影(outline)